통신서비스 Week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1.5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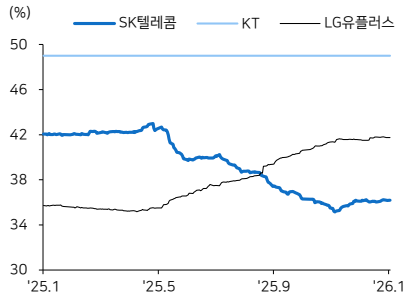
통신/우주/미디어 Analyst 정지수 jisoo.jeong@meritz.co.kr
RA 박건영 geonyoung@meritz.co.kr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1W	1M	3M	6M	2024E	2025E	2024E	2025E	2024E	2025E
KOSPI	4.7	5.1	21.4	41.1	14.8	10.2	1.5	1.3	1.4	1.6
통신업종	-3.0	-3.4	-1.8	-6.2	10.7	8.9	0.8	0.8	4.4	5.5
SK텔레콤	0.0	-1.5	-2.0	-2.0	26.2	10.1	1.0	0.9	3.9	6.2
KT	-3.0	-2.8	0.8	-10.6	7.2	8.5	0.7	0.7	4.7	5.0
LG유플러스	-5.3	-4.5	-4.1	0.3	10.5	8.2	0.7	0.7	4.6	4.9
AT&T	-0.4	-3.3	-9.2	-13.4	11.9	10.9	1.5	1.4	4.5	4.5
Verizon	0.5	-1.8	-7.2	-7.0	8.7	8.5	1.6	1.5	6.7	6.9
T-Mobile	0.3	-4.1	-13.3	-17.1	19.7	17.1	3.8	3.9	1.8	2.0
NTT	0.9	1.3	2.0	2.5	11.9	11.2	1.3	1.3	3.4	3.5
KDDI	-1.0	1.4	15.5	9.0	14.0	13.0	2.0	1.9	3.0	3.1
Softbank	-0.8	-3.3	-11.9	64.5	13.0	35.5	1.8	1.7	0.3	0.3
China Mobile	0.7	-4.1	-1.3	-2.9	11.2	10.7	1.1	1.1	6.6	7.0
China Unicom	-1.7	-9.9	-9.3	-14.1	10.4	9.8	0.6	0.6	6.3	7.0
China Telecom	-1.4	-9.4	2.6	-1.4	13.0	12.3	1.0	0.9	5.7	6.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36.2% (+0.1%p WoW, +0.1%p MoM)
KT 49.0% (-0.0%p WoW, -0.0%p MoM)
LGU+ 41.8% (-0.0%p WoW, +0.2%p MoM)
SKT 외국인 순매수 기록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월 첫째 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7.7%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LG유플러스 내부 서버에서 임직원 성명 등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 다만 서버 운영체제 변동으로 원인 규명 제한적
12/30일 KT는 무료 데이터 등 4,500억원 규모의 고객 보답 프로그램,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호 혁신 계획을 발표
국내 기관은 SKT, KT, LGU+ 순매도, 외국인은 SKT 순매수, KT, LGU+ 순매도

금주 전망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 펨토셀 관리 부실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권고, 1월 13일까지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예정
SK텔레콤은 KT 위약금 면제에 신규 가입 고객 혜택 강화 등 시장점유율 40% 회복을 위한 마케팅 확대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3조원 투자 계획
우주항공청은 2026년 연구개발에 9,495억원 투입 예정, 공공 복합 통신위성과 저궤도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추진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3 주간 뉴스

▶KT 모든 가입자 도·감청 노출…"위약금 면제해야" (뉴스1)

- 펨토셀 관리 부실로 KT 모든 가입자의 문자, 음성 통화 탈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명
- 정부는 이번 소액결제 사태 귀책 사유가 KT에 있다고 보고,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권고
- 법률 자문 결과 KT는 이용약관을 통해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
⇒ 총 5개 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 진행. 4개 기관에서 KT의 과실로 판단, 1개 기관은 전고객은 과대 의견
⇒ 소액결제 피해 규모는 368명(777건), 2억 4,319만원으로 확정, 유출 가입자는 2만 2,227명

▶ KT '위약금 면제' 1만명 떠났다…고객 뺏긴 SKT '혜택' 보니 (한국경제)

- KT 위약금 면제 조치 첫날 가입자 약 1만명 이탈, SK텔레콤은 점유율 40% 회복 위한 마케팅 확대
- 업계에 따르면 KT 위약금 면제 첫날인 12/31일 총 1만 142명이 KT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
- 그 중 절반이 넘는 5,784명이 SKT로 이동, LG유플러스로 1,880명, 알뜰폰으로 2,478명 이동
⇒ SKT는 작년 10일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 약 10만명 유출, KT는 나흘 더 긴 14일간 면제 시행
⇒ SKT는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멤버십 혜택 강화 등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마케팅 확대 전망

▶ LGU+ 서버에서 정보유출…운영체제 폐기로 해킹 규모는 확인 불가 (뉴스1)

- 정부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내부 서버에서 서버목록, 계정정보, 임직원 성명 등 정보가 유출
- 회사가 침해사고 흔적을 보여주는 경로 상의 서버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폐기하며 원인 규명 제한적
- 과기정통부는 작년 10/24일부터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유출 의심 서버의 포렌식 분석을 진행
⇒ 협력사 직원 노트북부터 LGU+의 APPM 서버 경로상 주요 서버등이 모두 OS 재설치 및 폐기
⇒ 회사가 8/12일부터 9/15일까지 취한 조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

▶ KT, 내년 1월 13일까지 전 고객 위약금 면제…데이터·OTT 혜택 제공 (디지털타임스)

- KT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1/13일까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결정
-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9/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위약금 면제는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 1/14일부터 1/31일까지 홈페이지, 매장을 통해 신청 가능
⇒ 환급은 해지, 신청일에 따라 1/22일과 2/5일, 2/19일 등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
⇒ 위약금 면제와 함께 4,500억원 규모 고객 보답 프로그램, 1조원 규모 정보보호 혁신 계획 등 발표

▶ 우주청, 2026년 R&D에 9495억원 투입…연구개발 생태계 '전주기 고도화' (아시아경제)

- 우주항공청은 2026년 연구개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연구개발 생태계의 구조적 고도화를 제시
- 9,495억원을 투입해 직할 연구기관 역량 강화, 우주 전문인력 양성,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 지원
- 이번 시행계획은 53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대비 410억원 늘어난 규모
⇒ 우주항공청 전체 예산 1조 1,201억원 가운데 기본경비와 비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금액
⇒ 위성분야에서는 공공복합 통신위성과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로 통신 사각지대 해소 계획

▶지지분한 공중 전선, 3조원 투입해 정비 나선다 (뉴스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정비사업 체계 개선,
- 재난립 방지 대책 마련,정비사업의 효율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
⇒ 정비 대상 지역은 2차 중장기 계획 대비 12개 지자체를 추가해 총 39개 지자체 대상
⇒ 정비 투자규모는 1,500억원 증가한 3조원 규모이며, 산림 인접 지역의 케이블 지중화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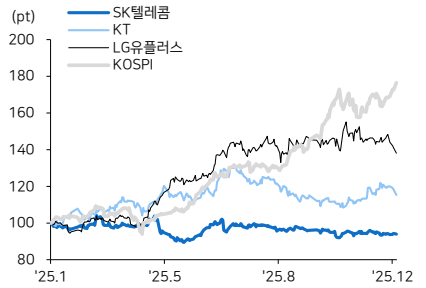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2025E	2026E
한국	SK텔레콤	53,300	7.9	11.7	12.0	0.8	1.2	0.3	0.8	3.2	3.6	4.4	3.9	4.0	9.6
	KT	51,600	9.0	19.1	19.0	1.7	1.5	1.2	1.0	4.3	4.1	3.3	3.5	10.6	8.4
	LG유플러스	14,570	4.3	10.5	10.7	0.6	0.8	0.4	0.5	2.4	2.5	3.2	3.1	6.8	8.3
미국	AT&T	24.6	174.1	125.0	126.9	25.1	27.2	14.9	15.8	46.2	47.7	6.7	6.5	13.9	13.1
	Verizon	40.5	170.8	137.9	140.4	31.7	32.7	19.4	20.2	50.2	51.3	6.2	6.1	18.6	17.8
	T-Mobile	199.6	223.2	88.1	94.4	19.1	21.1	11.4	12.8	33.9	37.3	9.2	8.3	19.3	23.1
일본	NTT	158	91.1	91.0	93.7	12.3	11.2	7.6	6.9	23.5	22.0	8.0	7.8	10.9	10.7
	KDDI	2,709	72.4	39.7	41.0	7.8	7.6	4.9	4.8	12.7	12.2	8.4	8.1	13.3	14.3
	Softbank	4,400	160.3	48.7	52.0	21.8	24.2	5.1	10.4	20.6	31.4	13.9	8.4	6.7	19.0
중국	China Mobile	83.5	235.2	151.1	154.7	22.9	24.1	20.6	21.6	49.6	50.8	4.2	4.1	10.2	10.4
	China Unicom	8.1	31.7	56.8	58.1	2.7	3.0	3.1	3.2	14.3	14.5	2.0	2.0	5.6	5.9
	China Telecom	5.5	79.7	76.4	78.1	6.1	6.4	5.0	5.3	21.1	21.7	3.5	3.4	7.5	7.8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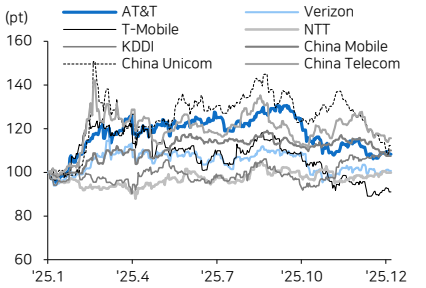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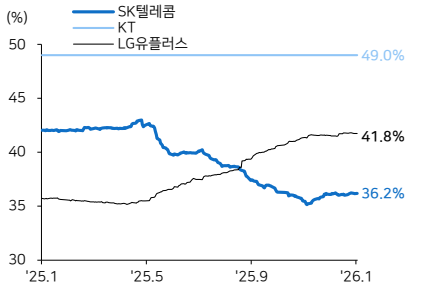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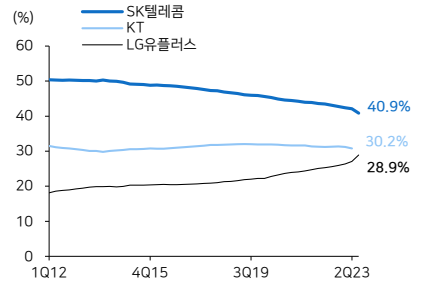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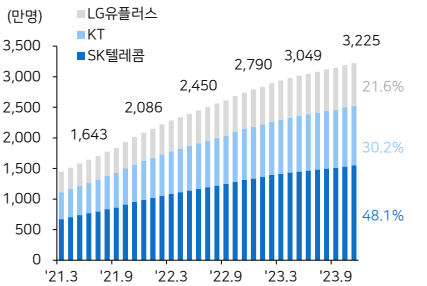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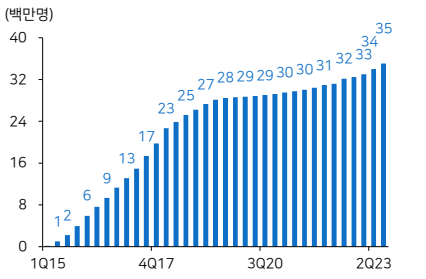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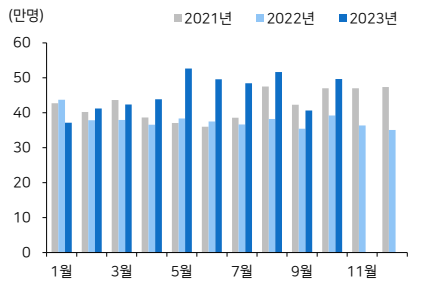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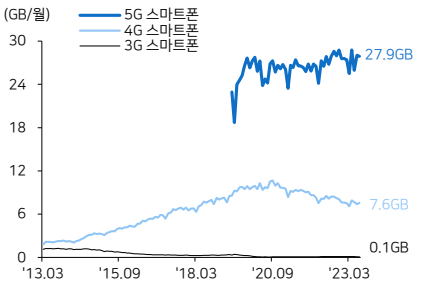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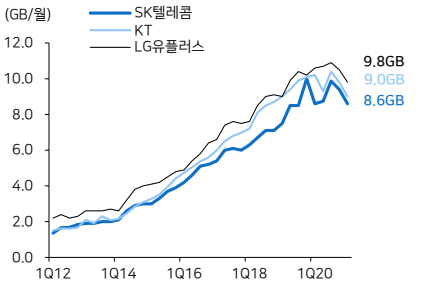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